

신간

그곳에 빛이 있었다

파트릭 텔리에 지음 | 조안나 옮김
바오로딸 | 264쪽 | 1만4천원
문의: 944-0945

임사 체험을 과학과 가톨릭 신앙의 관계 안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 나서는 현대인들이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눈뜨게 하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비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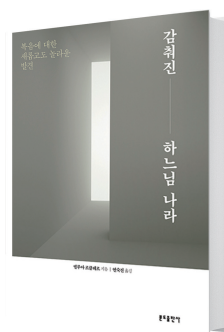


신간

4차 산업혁명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

주수옥·이원재 엮음
기쁜소식 | 140쪽 | 1만원
문의: 762-1194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거대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앞에 노동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삶의 의미를 다시 고찰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 책은 대방동성당에서 지난 1년 동안 모든 신자가 이 주제를 놓고 함께 토론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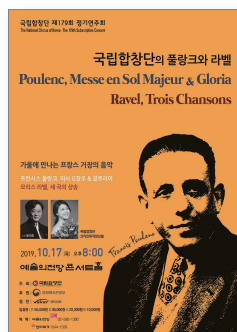


신간

감춰진 하느님 나라

엘루아 르클레르 지음
분도출판사 | 264쪽 | 1만7천원
문의: 2266-3605

스무 살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간 르클레르 신부는 지옥과 같은 수용소에서 하느님의 부재를 경험했다. 저자는 버림받음과 죽음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통해 하느님 침묵의 의미를 탐구한다.



연주회

국립합창단 제179회 정기연주회
풀랑크 미사 G장조와
글로리아

입장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 문의: 1544-1555, 580-1300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참조시 주보 1부 4인 30% 할인

국립합창단 제179회 정기연주회 <풀랑크 미사 G장조와 글로리아>가 10월17일(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있다. 가을에 만나는 프랑스 거장의 음악이라는 주제 아래 프란시스 풀랑크와 모리스 라벨 곡이 소개된다.



연극

발칙한 로맨스

공연시간: 수~금 20시, 토 15시·18시, 일공휴일 14시·17시
입장권: 전석 4만원 / 문의: 719-0988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참조시 주보 1부 4명 70% 할인

연극 <발칙한 로맨스>가 JTN 아트홀 2관에서 오픈 런으로 공연된다. 로맨틱 코미디로 첫사랑의 추억을 유쾌한 아이디어로 풀어냈다. SNL코리아의 감초 김민교가 직접 작, 연출, 출연까지 하는 작품이다. 풋풋해도 가볍지 않은 첫사랑의 느낌을 웃음과 감수성으로 관객들에게 전한다.



음악회

평화·통일기원
음악회-미사

음악회: 오후 3시, 미사: 오후 5시
전석 초대
문의(티켓예약): 033)644-8271 애지람

3.1독립운동 100주년 및 성 프란치스코와 술탄의 만남 800주년 기념 <평화·통일기원 음악회-미사>가 9월28일(토),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있다. 수익금 전액은 민족화해위원회에 기부되어 북한 결식아동 돕기에 사용된다.